

국제한국사학회 윌레발표회

2009. 11. 21(토)

한국불교사 연구의 일 방법론 모색¹

김종명

한국학중앙연구원

jmk@aks.ac.kr

이 논문의 목표는 한국²불교사 연구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장(fl. 636-50)과 불교,³ 고려(918-1392)와 불교 및 세종(1418-50)과 불교와의 관계에 대한 통설들을 재검토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⁴

이 논문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기존 연구 관행의 반성”에서는 일차 자료, 방법론 및 학계 관행의 측면에서 한국사 및 한국불교사학계의 한계성을 검토하며, 제2장 “한국불교의 특징 논쟁”에서는 기존 학계의 한계성에서 비롯된 “호국불교” 개념을 포함한 한국불교의 특징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3장 “새로운 방법론 모색: 3가지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발표자의 기존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사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새로운 방법론 모색이 왜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기존의 한국 사학계에서는 『삼국사기』(1145)와 『삼국유사』 5(13세기 후기)⁵ 등의 공식, 비공식 역사서를 중심으로 한국사 및 한국불교사를 연구해 왔다. 또한, 최

1 이 논문은 출판 전의 발표문이므로 저자의 허락 없는 무단 인용은 금한다. 이 발표문은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교(Universiteit Leiden)에서 2009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History as Social Process: Unconventional Historiographies of Korea”란 주제로 개최된 워크숍에서 “A Search for New Approaches to Study Korean Buddhist History”란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의 개정본이다. 당시의 발표논문에 대한 논평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신 레이덴 대학교의 Barend ter Haar 교수께 감사드린다.

2 여기서의 한국은 대한민국(남한)을 뜻한다.

3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 “불교”란 개념은 전근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때는 불교의 지칭어로서 석교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서양에서 불교는 “Buddhism”으로 통칭되고 있는 데, 이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도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다. 불교의 내용 또한 여전히 학계의 논의점 중의 하나다. 따라서 이 발표문에서의 불교는 역사상 한국에서 신행된 불교전통을 뜻한다.

4 한국불교는 불교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유교, 무교 등 다른 전통사상 및 신앙과의 융합 과정을 통하여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유교 등 다른 종교 전통과의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문에서는 한국불교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5 이 두 책의 구성, 내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는 Kim 1976: 11-17, 30-4 참조.

6 이 책의 편찬 시기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최남선(1890-1957)의 설을 따라 1278년으로 간주해 왔으나, 최근 새로운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명 2008: 365 참조.

근에는 비문,⁷ 고고학적 유물,⁸ 편지글, 여행기⁹ 등도 한국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발표자도 동의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일차 자료들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기존 연구업적들의 경우,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다른 일차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또는 이에 대해 무지하거나, 기존의 일차자료들에 대해서도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만 선별적으로 인용하여 결론을 도출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주제와 관련된 구득 가능한 일차자료들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과 기존 일차 자료들의 관련 내용을 연도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 기존 한국사학계에 대한 반성

기존의 한국사학계는 일차자료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한국사 자체에 대한 방법론 수립의 미비 및 연고주의 등의 학계의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발표자는 이해하고 있다.

1. 일차자료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역사서, 개인문집, 비명, 묘지명 등은 한국사를 포함한 한국학 연구의 일차 자료들이다. 특히, 왕명에 의한 정사인 『삼국사기』와 선승인 일연(1206-89)에 의한 비공식 사서인 『삼국유사』는 4세기부터 10세기까지의 한국불교사 연구를 위한 필수 문헌들이며, 두 가지 사료 가운데, 특히 『삼국유사』는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Kim 1994: 25). 『고려사』(1451)와 『조선왕조실록』¹⁰은 각각 고려시대(918-1392)(Kim 1994: 12-3)와 조선시대(1392-1910) 불교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차자료다. 또한 『고려대장경』(13세기 중기)과 『한국불교전서』(1998-2004)는 한국 불교철학 연구의 일차자료들이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불교사 연구에서는 참고 가능한 일차자료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7 고려시대의 금석문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절반 이상은 불교와 관련된 것이며, 그 규모와 분량 및 내용 면에서 이를 능가할 자료가 없을 정도다. 특히 금문보다 석문이 현존하는 사례도 많으며, 글자 수도 다수며, 예술성면에서도 더욱 중요한데, 국사와 왕사의 부도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허흥식 2006: 40-1).

8 미국 UCLA의 그레고리 쇼펜교수는 비명과 고고학적 증거에 바탕을 둔 일련의 개척적 연구업적들(Schopen 1991, 1997, 2004, 2005)을 통해 경전 위주의 전통적 연구결과들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승려들도 일반 신자들처럼 세속적 목적 달성을 위해 보시를 하고, 죽은 자를 위한 추선 의례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9 쉬징(서궁)이 지은 『가오리투징』(고려도경, 1123)은 한국불교와 관련된 대표적 여행기다.

10 『조선왕조실록』은 아시아의 실록 가운데 유일하게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로 1997년에 등재되었다(Kim 2007: 136). 한국의 세계불교유산의 사상과 의의에 대해서는 김종명 2008 참조.

2. 고유 방법론의 부재

한국사 중심 연구방법론, 비교 분석 및 불교 지식 부재는 현대 한국불교사 연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다.

(1) 한국사 중심 방법론의 부재

근대의 한국사 편찬은 일제시기(1910-45)의 일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945년 한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에는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일본 학자들에 의한 제국주의적 역사관을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들이 이룩한 연구업적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사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연구방법은 일정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사 연구방법에는 민족주의적, 랑케식(실증주의적), 및 마르크스식 연구방법론의 3가지가 있었다. 이들 3가지 중, 적자생존의 현장에서 한국의 국가정신을 강조한 민족주의 역사연구방법론은 일본 학자들에 의한 제국주의적 역사관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개된 것이었다. 실증주의적 역사연구방법론은 한국사 연구방법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다. 근대 한국에서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1세대인 실증주의사가들은 자료와 문헌 비평에 바탕을 두면서 사실 탐구를 강조하였다. 한편, 하부구조(물질적 조건)가 상부구조(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영역)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편 마르크스식 역사연구방법론도 일제시기에 전개된 이론이었다.

그러나 광복 후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한국사학계의 분단도 초래되었다. 그 결과, 마르크스식 연구방법론은 남한에서는 사라지게 된 반면, 북한에서는 한국사 연구의 주류 방법론이 되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연구방법론에 모두 정통한 한국사학자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역사처럼, 한국사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토대로 전개된 역사였다. 따라서 한국의 특징적 역사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도 필요할 것이지만, 현재의 방법론들은 모두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들이며, 한국 중심의 역사 연구방법론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Kwon 2000: 51-2).

(2) 비교 분석 부재

적어도 삼국시대(57 B.C.E.-668 C.E.) 이래의 한국은 현재 중국 지역의 왕국들¹¹ 및 일본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한국학자들은 한국사를 한국이란 고립된 영역 내에서 연구해 온 결과, 한국과 이웃 국가와의 관계사적 시각에서 한국사를 연구하지 못했다. 한국학계는 중국사든, 일본사든, 유럽사든 상관없이 한국사 이외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도 무지하였다(Kwon 2000: 51)는 지적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영어(Deuchler 1992; Palais 1996; Buswell 1999: 134-59; Duncan 2000;

¹¹ “중국”이란 용어는 1911년 또는 1949년 이후에 정식국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거 중원 지역에 존재했던 나라들을 중국으로 호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허홍식 2006: 37)는 지적에 발표자는 동의한다.

Schultz 2000; Brueker 2006; Vermeersch 2008)를 비롯한 외국어로 발표된 한국사 관련 주목할 만한 연구업적들이 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한국사학자들은 이러한 해외의 연구업적물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이 업적물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하였다.¹² 반면, 해외의 한국사학자들은 한국의 한국사학자들의 연구업적들도 참고해 왔다.¹³ 따라서 한국의 한국사학자들과 해외의 한국사학자들 사이에 한국사 이해의 차이가 초래되고 있는 형편이며, 한국불교사학계의 경우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3) 불교 이해의 부족

한국의 불교사학자들과 불교미술사학자들은 불교 교학¹⁴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도 200여개의 4년제 한국의 대학교들 가운데, 불교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한 점은 이를 반영한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한국불교와 관련된 자료들을 자신들의 연구자료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심층적인 불교 지식을 보유한 학자는 드물며(Kim 2008: 27), 따라서 성급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이 점과 관련, 김리나 교수¹⁵와 존 로젠필드(John M. Rosenfield) 교수¹⁶는 불교미술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도 불교 교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3. 한국사학계의 관행

편협성, 학계간 연구 결여 및 선행 연구 검토 부족은 국내 한국사학계에서 발견되는 관행들이다.

한국 대학교들의 역사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들 상당수는 특정 대학 또는 모교 출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국 불교학의 메카였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의 교수진은 거의 그 대학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학내 교수진이 동

12 류영익 교수 등에 의해 설립된 현대한국학연구소에서는 북미주에서 출판된 한국사 관련 단행본들에 대한 서평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출간해 왔는데, 이는 한국의 한국사학계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9년 현재 이 연구소에 의한 이러한 활동도 중단되었다. 더욱이 최근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사 관련 신간과 박사학위논문들에서도 영어권을 비롯한 외국학계의 한국사 연구성과를 반영한 경우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13 왈라벤(Walraven) 교수의 최근 논문(2009: 1-40)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14 이 발표문에서 의미하는 불교교학은 사성제를 포함한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뜻한다. 초기불교의 내용에 대해서도 학계의 논의는 다양하지만, 석가모니의 1세대 제자의 활동기까지, 즉, 그의 사후 100년간의 불교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에서도 이에 따른다.

15 불교미술사학자며,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2007년 여름 발표자와의 대화에서.

16 미국의 미술사학자며,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명예교수. 본 논문의 발표자가 2007년 11월 9-11일까지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Esoteric Buddhist Tradition in East Asia: Text, Ritual and Image”란 주제로 개최된 불교학회에서 “The Philosophical Underpinning of the Calamities-Solving Ritual and Its Nature in Medieval Korea”란 논문 발표를 끝냈을 때, 방청석에 있던 그는 발표자에게로 급히 다가와 “우리가 진실로 찾던 논문이었다”라고 하였다.

창이나 동문들로 구성될 경우, 학문의 생명인 비평 문화가 형성되기 힘들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 선진국의 현상과는 상당히 다르다.¹⁷

한국의 한국사학자들은 특정 기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등의 특정 분야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분야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 칸막이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Kwon 2000: 51; 김종명 2001: 14-5).

같거나 비슷한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도 기존의 한국불교사학계가 가진 관행 중의 하나다. 일례로, 고려시대의 불교의례를 다룬 두 책(김종명 2001과 안지원 2005)에서는 고려 불교의례의 기능에 대한 해석을 서로 달리하였다. 기존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고려의 주요 불교의례들의 기능은 호국에 있었다. 그러나 전자는 관련 선행 연구성과들을 검토한 끝에 새로운 견해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자보다 4년 늦게 출간된 후자는 전자의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의 통설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제까지 살펴본 문제들은 여전히 한국학계에 상존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불교의 특징들로 간주되어 온 개념들도 이러한 한계성의 산물임을 밝힌다.

II. 한국불교의 특징에 대한 담론들

“(회)통불교,” “호국불교,” “기복불교”¹⁸ 및 “치마불교” 등은 한국불교의 특징을 사상적, 역사적, 기능적 및 성적 측면에서 각각 표현한 개념들이다. 이 가운데 기존의 한국불교학계에서는 통불교와 호국불교 개념을 한국불교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진보적 학자들의 비판적 도마 위에 올라 있다.

1. 한국불교와 “통불교”

통불교 개념은 역사상의 중국불교와 일본불교가 종파불교였던 점과는 달리, 한국불교는 비종파적 불교란 것이다.

심재룡에 의하면, 통불교 개념은 1930년에 최남선이 일본 학자 다카하시 토루(1878-1967)가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의 아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창성이 없다”¹⁹고 한데 대한 대응으로서 원효(617-86)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불교를 특징화 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심재룡은 통불교가 한국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개념이 한국불교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규정짓는 단어로 쓰여서는 안 된다

17 일례로, 세계적 대학교들인 미국의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와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의 경우, 모교 출신 교수 비율은 2009년도 현재 각각 10%이하 및 20%이하이다.

18 기복불교의 기원, 성격,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특집] 기복불교를 말한다 | (2001 여름)에 게재된 일련의 게재문들 참조. 기복불교 전통에 대한 승려의 비판적 논문으로는 진휴 2008 참조.

19 다카하시의 한국불교에 관한 견해들은 포괄적이지도 않았다. 일례로, 그의 저술에 나타난 세종대의 불교에 대한 내용은 선별적인 것이었다(Kim 2007: 138, note 6).

고 주장하였다(심재룡 1985; Shim 1999: 148-56).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 상에서 통불교 담론이 한국 불교학계의 지배적 담론으로 전개되게 된 역사와 그 담론이 갖는 의미와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조은수 2004: 1-13)도 시도되었다.

또한 버나드 세네칼(Bernard Senecal)은 “[한국불교사상] 통불교란 이상이었을 뿐, 현실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한국불교학계에서 사용되어 온 통불교 개념을 비판하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한 개념이 현실화 되었다면, 일례로, 일제시대 이래의 태고종과 조계종 사이에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통불교는 한국불교를 특징짓는 표현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Senecal 1997: 173).

2. 한국불교와 “호국불교”

한국역사상, 불교의 운명은 정치권의 태도에 달려 있었으며, 따라서 불교계는 정치권과 일정한 타협을 지속시켜 왔다. 한국학자들은 전통 한국에서 불교계와 정치권과의 이러한 상보적 관계를 호국불교란 개념으로 표현해 왔으며, 이 개념은 한국 불교의 역사적 특징으로 간주되어 왔다.²⁰ 현대에서도 이 개념은 학계와 승단 양쪽에 의하여 한국불교가 지닌 특별한 문화적 가치로까지 강조되어 왔으며(Kim 1994: 271), 정부도 국가와 불교계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김종명 2008: 311).

그러나 호국불교란 표현은 현대적 산물이다(Kim 1995: 53-5). 1920년대 일제에 의한 정치적 산물로서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특히 박정희(1917-79) 대통령 치하의 독재정권 시대인 1970년대에는 당시 문교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호국불교 개념과 관련된 학계의 연구업적들이 다수 산출되었다(Kim 1994: 271; 김종명 2001: 279-82).

그러나 호국불교 개념은 명확한 정의 없이 쓰여 왔다. 일례로, 호국에서의 “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호국경전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온 『런왕징』(인왕경)에서의 “국”은 물리적 영토를 의미하는 국토가 아니라 마음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또한 한국 역사상 많은 왕들은 불교의례에 직접 참가하기도 하였는데, 통설에서는 그들의 참가를 불교의례가 호국의례로서 기능한 증거로 삼아 왔다(김종명 2001: 282-6). 그러나 왕과 국가가 동일시되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고려시대 왕사와 국사의 구분은 왕과 국가를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한 예다(김종명 2001: 295-7). 또한 정국이 혼란하였던 신라 하대에는 많은 왕들이 교체되었다. 왕이 국가라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기존학계에서 호국불교의 증거들로 간주해 온 주장들에 반대되는 문헌적 증거들도 적지 않다. 일례로, 고려의 임금들은 백성을 국가의 근간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첫째 임무가 백성들의 안정된 삶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불교의례들의 개최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기록도 있다(김종명 2001: 300).

20 관련 연구업적으로는 Kim 1995: 23, note 1 참조.

서경수(1980: 24-32), 로버트 버스웰(Robert Buswell)(1983: 2-5, 71, 79-80; 1985: 91;²¹ 1991: 2, 72), 김용옥(1990: 80-8), 심재룡(1990: 121-2, 143, 210), 조은수(2004: 12) 등 국내외의 학자들은 이미 각각의 단편적 주장들을 통해 호국불교 개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호국불교란 기존의 불교학계가 국가와 불교승단 사이의 상보적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을 가하지 못한 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결과란 것이다. 발표자는 이 개념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한 일련의 연구업적들(Kim 1994: 270-6; Kim 1995: 23-55; 김종명 2000: 93-120; 김종명 2001: 277-97; 김종명 2008: 310-8)에서 호국불교를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다.²² 그 이후 세네칼(1997: 172), 판카즈 모한(Pankaj Mohan) (2006: 49-67) 등의 학자들도 발표자와 견해를 같이 해 왔다.

무엇보다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간주되어 온 통불교와 호국불교 개념이 믿을 수 있는 문헌적 증거 위에서 주장되지 않고, 이해 집단의 이념적 또는 목적론적 산물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김종명 2008: 311).

III. 새로운 연구방법론 모색: 3가지 사례

아래에서는 자장과 “호국불교,” 고려와 “호국불교,” 세종과 불교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불교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을 시도할 것이다.

1. 자장과 “호국불교”

한국 종교학의 아버지 이능화(1869-1943)를 비롯한 한국의 학자들은 자장을 호국불교의 간성으로 간주해 왔다. 그들은 자장이 대국통으로서 율종을 창설하여 신라인들의 윤리관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신라 불국토 사상을 주창함으로써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자장의 삶과 사상 연구에 이용한 일차 자료는 『삼국유사』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주제 연구와 관련 중요한 또 다른 자료인 『취가오성주안』(속고승전, 645)은 참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자는 자장 당시의 기록일 뿐 아니라, 그 찬술 시대도 전자보다 600년 이상 앞선 자료로서, 주제 관련 자료적 가치가 훨씬 높은 것이다.

자장과 호국불교 개념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발표자의 기존 논문(Kim 1995: 23-55)에서, 발표자는 자장을 이 개념의 간성으로 간주해 온 통설을 재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삼국유사』와 『속고승전』의 자장 관련 기록을 비교적 시각에서

21 이 학위논문의 개정본은 Buswell 1989로 출판되었다. 북미주 불교학계에서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 책의 출간은 Buswell 1983과 함께 이러한 시각을 불식시키고 북미주 학계에서 한국불교학이 독립 학문분야로 정립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22 호국불교의 기원, 역사,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개념이 가진 문제점을 학술논문 등을 통해 처음 규명한 이는 발표자가 아닌가 한다.

분석하였다. 자장의 삶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두 자료는 상당한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장의 오계 수계 사실, 그의 입당 동기, 탕(당)나라에서의 문수보살과의 만남 기록, 대국통 제도의 수립 시기와 동기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속고승전』에서 자장은 정치 조언자로서 보다는 종교 수행가로 묘사되어 있다.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종교 수행가로서의 자장은 그다지 강조되고 있지 않다. 특히 『삼국유사』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우리는 이 책이 편찬된 당시의 시대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임금의 후원 아래 찬술된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산물이었기 때문이다(Kim 1995: 35-9).

고려 중기 국난의 시기에 당시 한국의 유구한 전통 유산을 강조한 문학 작품들이 나타났다. 『해동고승전』과 『삼국유사』는 그러한 작품들이었다. 일연의 생존 당시인 1215년에 승려 각훈(13세기 초 활동)은 『해동고승전』을 지었는데, 이 책은 고종(1213-59)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지배층과 승단과의 협력 관계를 잘 보여 주는 예였다. 『삼국유사』의 저자인 승려 일연은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싸고 군부와 귀족층 간에 갈등이 첨예화 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을 찬술하였다. 더욱이 일연은 50세 이후 충렬왕(1274-1308)을 비롯한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이 책을 지었다(Kim 1995: 36-8).

사실, 『삼국유사』는 왕실 가계를 특별한 사회 계급, 삼국 중 신라 중심, 지리적으로는 경주 중심, 이념적으로는 불교 중심으로 찬술된 책일 뿐 아니라, 역사적 객관성에 있어서 문제점도 적지 않은 책이다. 특히, 자장과 관련된 기록에서 일연은 믿을만한 문헌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Kim 1995: 39), 자장을 의도적으로 호국불교 개념의 주창자로 만든 것으로도 보인다(Kim 1995: 50). 더욱이 『삼국유사』의 찬자, 찬술 시기, 원본, 찬술 배경, 구조와 내용 및 이 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 등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로 남아 있다(김종명 2008: 363-9).

발표자는 『삼국유사』와 『속고승전』의 자장 관련 기록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자장은 신라에서 율종을 개창하지도 않았으며, 불교계율을 통해 신라인들의 윤리관 확립에도 기여하지 않았다; 그가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과장된 것이었다; 또한 그가 신라 불국토의 주창자였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사실, 자장의 관심은 정치적 문제들이 아니라, 고행에 있었다. 즉, 그는 종교인이었지, 정치인은 아니었다(Kim 1995: 25). 따라서 자장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해 온 통설은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Kim 1995: 53)

자장과 호국불교 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통설이 가진 가장 큰 한계성은 구득 가능한 관련 일차 자료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대해 무지한 채, 『삼국유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장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한 데 있었다(Kim 1995: 53-5). 그러나 자장은 더 이상 호국불교의 주창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 고려와 “호국불교”

『고려사』를 일차자료로 하여 통설에서는 고려를 불교국가로, 고려불교를 호국 불교로 규정하여 왔다. 특히 고려에서 개최된 불교의례는 고려불교가 호국불교로 기능한 중요한 예로 간주되고 있다(Kim 1994: 272; 김종명 2001: 278). 그러나 『고려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고려인들의 불교 관습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일례로, 문종(1046-83)은 화장이 불교식 장례법이란 이유로 그것을 반대하였다. 또한 연비 등과 같은 승려들의 고행도 군자로서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승려들에 대한 고려인들의 견해 또한 부정적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승려가 된 첫째 동기는 정치적 이유거나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장남이 승려가 되는 경우도 드물었다.²³ 고려에는 승병 제도도 있었을 뿐 아니라, 전쟁 시에는 승려들도 전쟁에 참여하였으며, 항마군은 그 한 예였다. 또한 승려의 아들은 관리가 될 수 없었으며, 승려가 된 전직 지방 관리의 아들도 지방 관리가 될 수 없었다(Kim 1994: 47-9; 김종명 2001: 311-6).

그러나 고려불교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이웃 나라 랴오(요, 907-1125)의 경우, 고려에서와는 달리, 불자들이 자신의 장남을 출가시키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요 나라는 전쟁 등의 국난을 맞아 국가 방위를 위해 모든 인력을 동원할 때도, 승려들은 전쟁 등에 참여하지 말고, 계율을 지키도록 장려하였다(김종명 2001: 311).

이러한 증거들은 고려를 불교국가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이와 관련, 최병헌²⁴과 Remco Brueker²⁵도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고려를 불교국가로 간주해 온 통설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고려사』 등의 역사적 자료에는 고려시대에 불교, 유교, 도교, 무교 의례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의례가 개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특히 불교의례는 고려 전시대를 통하여 한국 역사상 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이 개최되었다(Kim 1994: xiii-3). 그리고 불교의례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량 고려 임금들의 불교의례에 기울인 관심, 불교의례 개최 비용, 고려 사회에 미친 불교의례의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려 불교의례의 중요성은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사』는 내용의 상대적 정확성과 풍습 관련 기록의 풍부함 등으로 인하여 고려 불교의례 연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차자료인데,²⁶ 거기에는 약 6,000여

23 12-13세기 서양 중세의 하층 귀족 계급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다. 한 가지는 기사가 되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었다. 기사로서의 삶을 싫어하거나 적자가 아닌 남자가 수도사가 되었는데, 이들은 어린 아이 때 부모에 의해 수도원에 맡겨졌다. 그들은 엄격하면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베네딕트 종파(The Benedictine Order)의 예를 들면, 하루 3-8시간의 노동, 하루 한 끼의 식사, 4시간 미만의 수면, 겸손함과 절제 등이 요구되었다(DIA-VISION at Beaufort Castle 2009: 2-3).

24 전 서울대학교 한국불교사 교수. 2007년 어느 여름 발표자와의 대화에서.

25 고려사 전공의 레이덴대학교 senior researcher. 2009년 10월 24일 발표자와의 대화에서.

26 『고려사』는 조선 초기 유학자들에 의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고려 불교의례 연구를 위

건의 고려불교 관련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300여건은 불교의례와 관련된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불교의례 관련 기사가 10여건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려시대에는 그 전 시대에 비하여 훨씬 많은 불교의례가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조(918-43)를 비롯한 역대의 고려 임금들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불교의례 행사에 직접 참가하였다.

고려 불교의례의 기능과 관련, 이 불교의례들이 왕실의 조상숭배와 장수 기원의 목적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통설처럼 정치력 강화에 기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 통설의 경우, 고려 불교의례와 관련된 자료들 중, 논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선별적으로만 검토하고, 당시의 사회정치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결함으로써 불교의례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된다(Kim 1994: 5; 김종명 2001: 13).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의 불교의례는 고려의 의례들 중 가장 중요한 의례는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고려의 의례는 “길례대사”였으며, 불교의례는 “가례잡회”로 분류되어, 길례대사의 보조 의례로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Kim 1994: 45-6). 따라서 발표자는 통설과는 달리 고려에서 불교의례는 왕실 구성원의 심정적 안정제 역할을 하였으나, 그 의례들은 왕권의 강약과 관련 없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고려 임금들의 정치력 강화와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였다(Kim 1994: xiii-13). 고려 왕실이 불교를 강하게 지지했다 하더라도, 국가 지도 이념은 유교였으며, 관리직을 가진 유학자들 가운데는 반불교적 태도를 가진 이들도 있었음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고려 불교계는 의례 개최 등을 통하여 왕실 중심 지배층의 세속적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었고, 왕실 등은 그 반대급부로서 불교계에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III. 세종과 불교

세종은 그가 살았던 조선시대 뿐 아니라, 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로, 그의 시대는 한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대로 간주되어 왔다(Kim 2007: 136).²⁷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및 그 시대 불교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차자료며, 그 일

한 일차 자료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는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27 앞서 언급한 Haar교수는 “세종의 위대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란 질문을 하였다. 세종의 위대성의 일반적 근거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문민화를 가능케 하고, 과학 발전과 국방력 강화 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데 있다. 그런데 한 인간에 대한 평가 기준과 관련, 한국의 기준과 국제 기준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사상 중요한 인물로 회자되는 인물들은 주로 정치적 인물들이다. 삼국시대의 광개토태왕, 을지문덕, 김유신, 계백 등, 고려시대의 강감찬, 서희 등, 조선시대의 세종, 이순신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인 현대 한국에서는 이 기준이 좀 더 다양화된 면은 있으나(金玄洙 1998: 1), 큰 줄기는 크게 변한 것 같진 않다. 반면, 국제 기준은 더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이다. 미국 『라이프』지가 선정한 「1천년을 만든 1백인」에 의하면, 그 기준은 (1) 개인적 역경을 극복하고, (2) 인류의 삶의 질을 바꾸고, (3) 시대정신을 이끈 이를 위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위인 1위는 토머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847-1931)이었다(金成濬 1997: 9).

부분인 『세종실록』은 세종대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동시에 세종대의 불교 연구를 위한 일차 자료기도 하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세종과 불교와의 관계에 대한 통설에 따르면, 세종은 재임 초기에 아주 강한 배불정책을 폈으며, 그의 불교 이해는 심층적이지도 못했고, 그에 의한 한글 창제도 불교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의 내용도 불교에 관한 한,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많은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Kim 2007: 151-2). 그러나 발표자는 이러한 통설은 기존 학계가 조선시대와 불교 및 세종과 불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헌적 검토가 철저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산물임을 주장하였다(Kim 2007: 135-6).

발표자는 『조선왕조실록』과 『세종실록』에 기록된 세종과 불교와의 관계를 연대순으로 검토한 후, 세종은 재임 초기부터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죽을 때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의 한 산물로서 훈민정음 창제 및 그 홍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Kim 2007: 134-159).²⁸ 세종이 그의 재위 초기에 일정 부분 반불교 정책을 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배불정책은 몇 가지에 한하였다. 세종 재위 중기의 한 기록에 의하면, 그가 편 배불정책의 내용은 사찰 수 감소, 내불당 폐쇄, 불교종파 통합, 승려 도성 출입 금지, 출가 제한 등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의 총신 중의 한 명이었던 정인지(1396-1478)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 된다. 그에 의하면, 세종은 불교계의 큰 악습 3-5가지를 고쳤다고 하였다(Kim 2007: 141-4). 발표자는 결론적으로, 세종대의 불교에 대한 기존의 통설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세종에 의한 훈민정음 창제도 그의 불교관의 산물이었음을 주장하였다(Kim 2007: 134-45).

맺음말

이 발표문에서는 한국불교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을 목적으로, 자장과 호국불교 개념, 고려불교와 호국불교 개념, 세종과 불교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한 전 단계로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일차자료, 연구방법론 및 학계의 관행의 관점에서 기존 학계의 한계성과 그를 바탕으로 전개된 호국불교 개념을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의 특징에 대한 통설을 각각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발표자의 기존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사 분야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 모색을 시도하였다. 발표자는 통설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은 주제와 관련된 일부 일차자료가 무시되거나, 기존의 일차자료들의 주제 관련 내용들을 선별적으로만 인용하여 결론을 도출해낸 데 있다고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불교사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구득 가능한 일차 자료 분석 및 현존 일차 자료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8 각 편집진의 요청에 따라 이 논문의 개정본은 김종명 2007: 51-68에, 이 개정본의 재개정본은 김종명 2009: 189-224에 재수록 되었다.

주요 한자어

『가오리투징』 (고려도경) 高麗圖經	사성제 四聖諦
『고려대장경』 高麗大藏經,	석교 釋教
『고려사』 高麗史	세종 世宗
『런왕징』 (인왕경) 仁王經	취징(서궁) 徐兢
『삼국사기』 三國史記	승병 僧兵
『삼국유사』 三國遺事	신라 新羅
『세종실록』 世宗實錄	연비 燃臂
『취가오성주안』 續高僧傳 속고승전	오계 五戒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원효 元曉
『한국불교전서』 韓國佛教全書	왕사 王師
『해동고승전』 海東高僧傳	율종 律宗
가례잡희 嘉禮雜戲	이능화 李能化
각훈 覺訓	일연 一然
고려 高麗	자장 慈藏
고종 高宗	적자 嫡子
국사 國師	정인지 鄭麟趾
군자 君子	조선 朝鮮
기복 祈福	중국 中國
길례대사 古禮大事	중원 中原
다카하시 토루 高橋亨 고교형	최남선 崔南善
대국통 大國統	충렬왕 忠烈王
랴오 遼 요	당 唐 당
문수보살 文殊菩薩	태조 太祖
문종 文宗	항마군 降魔軍
박정희 朴正熙	호국불교 護國佛教
불교 佛教	화장 火葬
불국토 佛國土	(회)통불교 (會)通佛教

참고문헌

- 金成滌. 「지난1,000년 최대사건은 ‘금속활자발명’」, 《조선일보》 1997. 10. 11: 9.
- 김용옥.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서울: 통나무, 1990.
- 김종명. 「세종의 불교신앙과 훈민정음 창제」. 『東洋政治思想史』 6-1 (2007): 51-68.
- _____. 「세종의 불교신앙과 훈민정음 창제」. 정윤재 외. 『세종 리더쉽의 형성과 전개』. 서울: 지식산업사, 2009, pp. 189-224.
- _____. 『한국의 세계불교유산: 사상과 의의』. 서울: 집문당, 2008.
- _____. 『한국중세의 불교의례: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1.
- _____. 「호국불교 개념의 재검토: 고려 인왕회의 경우」, 『宗教研究』 21(2000년 가을): 93-120.
- 金玄浩. 「정부수립 50주년 대한민국 50대인물 선정」, 《조선일보》 1998. 7. 15: 1.
- 서경수. 「과거지향적 불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교가」, 『법륜』 135 (1980. 5): 24-32.
- 심재룡. 「한국불교는 회통적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최 국제학술대회, 1985.
-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조은수. 「‘통불교’담론을 중심으로 본 한국 불교사 인식」, 『불교평론』 21호 (2004년 12월 10일): 1-13 (인터넷 자료: www.budreview.com/news/articlePrint.html?idxno=335).
- 진휴. 「한국불교의 기복적 성격에 대한 고찰」, 2008년 제4회 전국학인 논문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이 논문의 요약문은 『인터넷 월간 해인』 (www.haein.org) 323 (2009년 1월): 50-1 참조.
- [[특집] 기복불교를 말한다], 『불교평론』 제7호(2001년 여름호).
- 許興植. 「고려 불교금석문의 특성과 정리방향」, 『大東文化研究』 제55집(2006年 9月): 35-64.
- Brueker, Remco Erik. "Where truth is everywhere: The formation of plural identities in medieval Korea, 918-1170," Ph.D. dissertation, Universiteit Leiden, 2006.
- Buswell, Robert E., Jr. "Buddhism Under Confucian Domination: The Synthetic Vision of Sosan Hujong," edited by JaHyun Kim Haboush and Martina Deuchler, *Culture and the State in Late Chosŏn Korea*. Harvard East Asian Monographs 182.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th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9, pp. 134-59.
- _____. *The Formation of Ch'an Ideology in China and Korea: The Vajrasamādhi-Sūtra A Buddhist Apocryph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The Collected Works of Chinul: The Korean Approach to Zen*. Honolulu: The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3.
- _____. The Korean Origin of the *Vajrasamādhi-Sūtra*: A Case Study in Determining the Dating, Provenance, and Authorship of a Buddhist Apocryphal Scriptur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85.
- _____. *Tracing Back the Radiance: Chinul's Korean Way of Zen*. Honolulu: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1.
- Deuchler, Martina.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1992.
- "DIA-VISION at Beaufort Castle: The Life of the Nobility of the Middle Ages in Beaufort Castle," Les Amis de l'Ancien Château de Beaufort, Association sans but lucratif, [Luxembourg], 출판 연도 불명. 2009년 10월 21일 Beaufort Castle 방문 시 얻은 자료임.
- Duncan, John B. *The Origins of the Chosŏn Dynasty*.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0.
- Kim, Jongmyung (Jong Myung, Jong-myung). "A Search for New Approaches to Study Korean Buddhist History,"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History as Social Process: Unconventional Historiographies of Korea," Leiden, Universiteit Leiden, The Netherlands, October 23-24, 2009: 1-15.
- _____. "Buddhist Rituals in Medieval Korea (918-1392)," Ph.D. dissertation, UCLA, 1994.
- _____. "Chajang (fl. 636-650) and 'Buddhism as State protector' in Korea: A Reconsideration." In *Religions in Traditional Korea*. SBS Monographs 3. Copenhagen: The Seminar for Buddhist Studies, University of Copenhagen, 1995, pp. 23-55.
- _____. "King Sejong's Buddhist Faith and the Invention of the Korean Alphabet: A Historical Perspective," *Korea Journal* 47-3 (Autumn 2007): 134-59.
- Kim, Tai-jin, ed. & trans. *A Bibliographical Guide to Traditional Korean Sources*. Seoul: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1976.
- Kwon, Yonung. "Korean Historiography in the 20th Century: A Configuration of Paradigms," *Korea Journal* 40-1 (Spring 2000): 33-53.
- Mohan, Pankaj N. "Beyond the 'Nation-Protecting' Paradigm; Recent Trends in the Historical Studies of Korean Buddhism,"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1 (March 2006): 49-68.
- Palais, James. B.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ŏngwŏn and the Late Chosŏn Dynasty*.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6.
- Schopen, Gregory. *Bones, Stones, and Buddhist Monks: Collected Papers on the Archaeology, Epigraphy, and Texts of Monastic Buddhism in India*.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7.
- _____. "Monks and the Relic Cult in the *Mahāparinibbāna-sutta*: An Old Misunderstanding in Regard to Monastic Buddhism." In *From Benares to Beijing: Essays on Buddhism and Chinese Religion*, edited by Koichi Shinohara and Gregory Schopen. Oakville, New York, London: Mosaic Press, 1991, pp. 187-201.
- _____. *Buddhist Monks and Business Matters: Still More Papers on Monastic Buddhism in Ind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 _____. *Figments and Fragments of Mahāyāna Buddhism in Ind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 Sencal, Bernard. "On Writing a History of Korean Buddhism: A Review of Two Books," *Korea Journal* 37-1 (Spring 1997): 154-77.
- Shim, Jae-ryong. *Korean Buddhism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Seoul: Jimoondang Publishing Company, 1999.
- _____. *Tongyang ūi chihye wa Sŏn* (East Asian Wisdom and Meditation). Seoul: Segyesa, 1990.
- Shultz, Edward J. *Generals and Scholar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 Vermeersch, Sem. *The Power of the Buddha: The Politics of Buddhism During the Koryŏ Dynasty*.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2008.
- Walraven, Boudewijn. "Cheju Island 1901: Records, memories and current concerns,"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History as Social Process: Unconventional Historiographies of Korea," Leiden, Universiteit Leiden, The Netherlands, October 23-4, 2009: 1-40.